

# “국민 정책 성과 체감에 최선”

문 대통령, 2019 신년회

“함께 잘 사는 사회 조성 혁신, 경제 역동성 살리고 저성장 극복 새 돌파구 새해엔 평화의 흐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년도 신년회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난 외부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제외한 경제 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기업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초청된 이번 신년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성공’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그간의 경제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체질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선진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새해 인사... 2019 정부 시무식

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정부 시무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공직자들

말기만 한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초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에서 불안할 수도 있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춥물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며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혁

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지원할 것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미희 전 구급팀장 김광수 소방행정과장 백승기 예방지도팀장

## 도내 첫 여성 지방소방장 탄생

도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승진 인사 단행

전미희 전 소방본부 구급팀장 김광수 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기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에서 3명의 지방소방장이 배출된 가운데 전북도 소방 창설 이후 첫 여성 지방소방장이 탄생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3일자로 도내 일선소방관서장 인사가 단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전미희(63년 2월생) 前소방본부 구급팀장이 전라북도 최초 첫 여성 지방소방장으로 배출되어 화제다. 그동안 남녀의 벽처럼 여겨져 온 일선소방서장급 지방소방장(4급)에 이름을 올렸으며,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전미희 구조구급과장은 군산 출신으로 특히 군산여고를 졸업한 뒤, 전주대 일반대학원 사회학 석사와 전북대 일반대학원 사회학 박사를 수료한 재난사회학 전문가로서 1985년 소방사 최초 임용된 이래 말단 계급부터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춰온 지 34년 만에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지방소방장 승진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 백승기 ▲소방본부 전 구급팀장 전미희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전북도가 어린이들이 전라북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함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제작한다.

전북도는 매년 도청 견학을 신청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어린이용 홍보책자는 삼라농성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도정 핵심과제를 비롯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전북도의 주요 산업 및 역사·문화 등을 담아낼 계획이다.

책은 어린이들이 도정과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동워크북 형식으로 제작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일러스트와 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점선잇기 등을 활용해 구성할 예정이다.

도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제작한다.

/김진성 기자

###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부안〉 보안면 영전마을 112000 보안면 신월마을 231000 보안면 반평마을 200000	보안면 상림마을 122000 보안면 매상마을 160000 보안면 유관마을 162000
---	---

(1월 3일자)

2019년 己亥年

謹賀新年



군산상공회의소는 2019년 신축 회관(장미동 1-50)으로 이전하여 군산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